

통일에감(統一豫感)

A Presentiment of the Unification

박영건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by Park Young-Kern

한보철강 사태-거액대출 의혹, 각종 리스트, 김현철 비리 의혹, 몸체, 깃털, 대선자금 의혹, 경제침체-무역적자, 사상 최고의 부도율, 연쇄 도산 우려, 황장엽 망명 귀순-기아선상에 있다는 북한동포, 설계사무소 수사-설계업체 선정 싸고 수뢰, 住公간부 구속-신축건물 설계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건축설계도서 등 납품과정에서 설계용역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 TV수상기 앞에 앉기가 겁이 난다. 아침마다 신문을 뒤적이지가 괴롭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자괴감, 상실감, 삶의 목표 실종, 저마다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을 나열해보지만, 오늘의 세태를 맞아 느끼는 소감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상황에서 필자가 느끼는 가장 강력한 텔레파시(Telepathy)는 '통일에감'이다. 이러한 모든 혼란은 통일을 암시하는 뚜렷한 징표이며 어디에서인가 보내오는 분명한 메시지(Message)라는 느낌을 받는다. 혼돈의 시대(Chaos)를 거치고 나면 새로운 평화가 찾아와서 희망찬 미래를 약속받을 것 같은 낙관적인 기대에 들떠 있다. 그래서 조금 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통일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 보았는가? 아직까지도 통일이라는 상황을 가상의 것으로 간주하고 그 과정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통일을 화두로 삼아 담론을 벌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하나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국한해서 연연해 할 일은 아니다. 역사적이며 민족적인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모든 분야,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다함께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또는 외교적인 산적인 문제들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좋겠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건축인들도 통일문제를 건축적인 안목으로 다루어볼만 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몇몇 뜻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를 어찌 해보자는 등, 통일을 전제로 한 얘깃거리들이 없지 않았으나 그 대부분을 호사기들의 농으로 치부해버리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구잡이가 아니고 체계를 갖추어 통일을 맞을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 물론 거창한 일이다. 손쉽게 다룰 문제가 결코 아니며, 그렇다고 공공 앓고만 있을 문제도 아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제 새삼스럽게 감출 것이 있었는가? 모두 꺼내놓고 하나씩이라도 맞추어 보기로 하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일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일종의 자기최면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오십년동안이나 갈라져 있었지만 다시 합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며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 비추어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고 스스로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어색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집념에 빠지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제대로 걸음마를 떼어보기도 전에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변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민족의 분열이 가져온 폐해가 매우 크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민족 두 집단간의 이질화가 너무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를 적대시하며 아무런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오십년동안이나 단절된 두 집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간혹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겉모양으로는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고층아파트들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초고층의 호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장건물이 보이는 평양거리의 모습을 그저 호기심으로만 바라볼 때는 지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건축적인 현주소를 알고 싶어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건축 현주소를 알아봄으로써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나이갈 비를 모색하여야 한다. 양극화된 이념적 갈등이 빚어낸 두 개의 사회구조와 경제체제,

그 결과로 나타난 도시환경이 매우 다르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각의 건물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북 분단 이후 우리 쪽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함께 최선을 다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만큼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제무대에서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이만한 부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북쪽의 현실은 자세한 내막이야 잘 모르지만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다.

너무나 강렬하게 전해지는 '통일예감', 이제 곧 새로운 전기가 도래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자랑스러운 조상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며 엄격한 기풍을 지켜온 가정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집안에서 형제간의 싸움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의 기운이 넘치는 이 시점에서 무너졌던 기풍을 다시 세우고 바로된 역사의 뒷발을 일구어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패배의식과 피지배의식에 젖어있다면, 우리 민족은 조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나아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자부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어떠한 영화가 돌아오겠는가? 오랫동안 생사도 모르고 지낸 이산가족이 다시 하나로 합치는 통일의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다시 한번 우리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밝혀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새술을 새포대에 담은 심정으로 해 목은 때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민족의 도약을 향한 출발점에 서서 엄숙하게 웃기를 여머야겠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지나치게 상업화를 추구하며 경제원칙에 맹목적으로 따르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실체가 거품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속보다는 겉치레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도처에서 보게 된다. 국제화, 세계화의 추구라는 명제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가히 꼴불견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선은 먹기가 좋다고 이것저것 살펴보지도 않고 덩석덩석 아무 먹거리나 삼켜버리는 것도 큰일이다. 설계경기가 있을 때면 남보다 한발 앞서 외국으로 뛰어가서는 공동작업도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계획을 만들어와서는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내놓고 일을 떠먹는 암체질은 없어야겠다. 그럴듯한 포장술에 현혹되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수준의 안목이 실제로 먹혀 들어가는 오늘의 세태가 한심스럽기도 하다. 국제화, 무한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을 앞세워 최소한의 공중도덕이나 개인적인 양심마저도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열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이고 결국 본의 아니게 스스로 혈뎀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부족한 점이나 잘못되고 있는 점 외에 잘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더욱 많을 것임에도 지나치게 지엽적인 일을 놓고 사실을 늘어놓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한 두 사람에게 국한되는 문제보다는 전체 건축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부터 다루어야 한다. 나뭇가 아니고 숲을 보는 자세로 처음부터 모든 일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말을 꺼내놓기는 했지만 생각이 모자라는 탓에 제대로 마무리하기가 역부족이다. 역시 우리 건축계를 총망라하여 중지를 모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축인의 뜻을 함께 모으는 합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갑자기 찾아와 머릿속을 온통 점령한 '통일예감'으로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한 석달 예정으로 집을 떠나려고 한다. 어디든 조용한 곳에 가서 차분하게 내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웬일이냐고 물기에 그저 지난 이십년 동안 갖지 못한 휴가를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갖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대답한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호들갑을 떠다고 비난할런지도 모르겠지만 필자로서는 매우 심각하다. 여러 가지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그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던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떠나 있는 동안에는 사무실이나 집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려 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애써 볼 작정이다.